

부름을 받는 동기

나는 매주 감동적인 장면과 마주친다. 울컥울컥 눈물이 솟는다. 영화나 책을 통해 오는 감동과 달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내려받는 장면을 미사 현장에서 본다. 영성체 하는 시간에 예비자들은 가슴에 양손을 x자로 하고 나온다. 예비자란 사인이다. 그들이 신부님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나는 그들의 몸짓을 통해 가장 순수하고 기대감에 찬 믿음의 모습을 본다. 나는 그 때, 신부님이 예수님처럼 느껴지고 수녀님이 성모님처럼 느껴지던 때가 아닌가. 진지하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그들이 무엇이든 느끼기를 바라며 기도를 한다. 지금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자분들은 무엇을 통해 부름에 응답했을까 한분 한분 묻고싶어진다.

하느님은 성당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르신다. 성서보다 앞서 친구, 성가대, 미사보, 촛불, 스탠드 그라스, 청년피정, 봉사, 장례식, 결혼식, 영화 등을 통해 감화를 받고 받을 적시면 그 때부터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길로 안내하여 영혼을 성장시켜 나간다. 종교생활을 익혀가는 과정도 다양하다.

나는 노처녀 딱지가 붙기 시작할 무렵, 꽃꽂이를 배웠다. 일주일에 한번씩 배우는데 그 꽃을 가지고 종로에서 종곡동까지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면 꽃이 쓰레기로 변한다. 하는 수없이 광화문에서 종로 관철동의 사무실까지 걸어와 대야에 담가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상무방에 꽂았다.

내가 상무방에 꽃을 꽂는 내막을 아는 여직원들도 내 행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정상 그런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했다.

그러나 상무님은 항상 고마워서 무엇인가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였는데 놀랍게도 출판문화원에서 원고 청탁이 오면 그 기회가 나에게 돌아왔다. 그 당시 우리 사무실에는 오정희 윤후명 고진숙 오영석 등 그 시대의 쟁쟁한 작가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내가 글을 썼다. 원고료는 꽃값 하기에 충분했다. 그 자리에 내가 꽃을 꽂는데도 이유가 있었다.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상무님도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남과 잘 부딪치지 않았고 편집과 미술 일을 겸한 나에게서는 편집실의 상당수 결재판이 넘겨졌다. 미술부 결재를 받으며 자기들 것까지 받아달라는 청이었다.

이상스럽게 남직원들이 가지고 들어가면 호통이 넘어오고 원고지가 날아가곤 하다가 내가 가면 그러지 못하니 나는 꽃을 보며 상무님의 마음이 유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꽃꽂고 우리는 변화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좋게 어울려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길은 어디라도 있다는 것, 어느 날 성당 제대 꽃꽂이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다. 그 해가 바로 41년 전, 내가 영세를 받은 해이다. 12월 16일에 영세를 받고 첫 전례주기를 맞은 나는 매순간 놀랍고 신기했다. 그대로 동화되고 합일하여 바로 예수시대를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적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 그 해, 나는 참 행복해서 지난 해 영세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 중에 묵주 한 단을 바쳤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환경 개선 봉헌금

환경개선 봉헌금 (2/24 현재)					
정 돈보스코	100,000	정 바오로	1,000,000	김 마리아	50,000
이 모니카	200,000	이 사비나	200,000	이 테레사	100,000
이 크리스티나	100,000	장 빈첸시오	100,000	김 마리아	100,000
김 요안나	500,000	전 미카엘	500,000	박 베르나르도	1,000,000
김 스테파노	5,000,000	한 엘리사벳	50,000	여성 성체조배회	1,000,000
(2월 18일 ~ 2월24일) 합 계				10,000,000 원	
총 누 계				101,540,000원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2/24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15,220,000	윤 소피아	100,000	故 김카타리나	50,000	총 세대수	3,751
주일 봉헌금	11,567,020	이 베네딕토	100,000	김 율리오	200,000	총 납부세대	680
		한 로사	100,000	조 알베르토	50,000		
본당시설보수 2차 봉헌금	7,403,650	신 마테오	100,000	최 세베리오	1,200,000	지난주 납부세대	57
		이 율리아노	100,000				
성소후원금 (7건)	127,000	합 계: 1,950,000 원			지난주 납부율 (%)	18.1%	